## κόκκος

코코스는 '한 알의 밀'을 의미합니다



발행인 강우정 편집주간 이강동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02-950-5401 www.bible.ac.kr

밀알사회봉사단(단장 이광삼) 학우들이 18일 경기도 연천지역 어르신에게 미용봉사를 하고 있다. 정서현(왼쪽부터 사복1), 김민정, 이하은, 김지선(전원 간호3) 관련기사 11p

2018 FEBRUARY

2

VOL. 192

#### 취업 끝! 영유아보육학과,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영보는 삼성, 직장, 국공립 등 선호도 높은 어린이집 취업 간호학과는 'Big 5'를 비롯 대학병원, 대형병원에 전원 안착 김민정, 박희동 동문은 '유치원 교사 국공립 임용고시' 합격

영유아보육학과(과장 조윤경 교수) 졸업예정자 27명과 간호학과(과장 김정숙 교수) 졸업예정자 46명 전원이 졸업 전 취업이 확정되어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다.

보육 교사 지망자들 사이에는 삼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선호도가 높은 어린이집인데 우리 대학 영보 졸업예정자들은 전원 이 계열의 어린이집에 취업이 확정 되었다. 삼성어린이집에 김세련 학우 등 4명이, 직장어린이집으로는 예금보험공사 어린이집의 강은정 학우 등 12명이 자리를 잡았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우리대학이 위탁 운영하는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에 김수진, 김은아 학우가 취업했으며 시립와부어린이집(최유경 학우) 등 8명이 들어갔다. 유치원 교사로도 2명이 취업하였는데 박수지(푸르니유치원), 한솔(세종유치원) 학우이다. 진다희 학우는 한국성서대의 행정조교로 학교에 남아 있게 되었다.

눈부시기는 간호학과도 다르지 않다. 46명의 졸업자 모두가 소위 BIG 5를 비롯하여 대학병원, 대형병원에 전원 안착하였다. 조연정, 천유림 학우가 삼성서울병원에 김세현 학우가 서울아산병원에 박수요 학우가 연세대세브란스병원에 장현아 학우가 서울성모병원에 입사하였다. 강동 경희대, 건국대, 고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백병원), 중앙대 (가나다 순) 등 대학병원에 들어갔으며,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에도 우리 학우들이 자리를 잡았다. 광명성애병원, 김포우리병원 등 우리 대학 출신 간호사를 선호하는 대형 병원에 올해도 어김없이 졸업생들이 입사하여 선후배의 큰 물줄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영보의 김민정(2013년 졸업), 박희동(2017년 졸업) 동문이 '유치원 교사 국 공립임용고시' (약칭,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기쁨을 더하고 있다(7면기사 참조).

#### 미니설교 **'부르심'과 '보내심'** 롬 10:14-15

**박민수** 목사(교목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다는 사실은 창조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누 군가에게로 보내심을 뜻합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파라오에게 보내 셨습니다. 여호수이를 부르시고 그를 가나 안으로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를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도들을 부 르시고 그들을 땅끝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곧. 보내심 없는 부르심은 없

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내심에는 순응하지 않으면서 부르심을 말하고 있다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전도자입니다. 우리가 그 분의 보내심을 충실히 이행할 때 그 보내심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부르심이 됩니다. 그러니, 당신을 부르신 그분의 '보내심'을 외면하지 마세요.

#### 제 1회 스룹바벨상 수상자 김예지, 김환, 김윤영 학우

#### 에스라상은 성경 17회 통독한 임계준 학우



▲ 김예지(성서4) 스룹바벨상



▲ 김 환(성서4) 스룹바벨상



▲ 김윤영(성서4) 스룹바벨상



▲ 임계준(성서4) 에스라상

2월 6일 제 63회 학위수여식에서는 새로 제정된 '스룹바벨상'이 수여 된다. 스룹바벨 상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에 선두에 섰던 스룹바벨과 같이 오늘날 무너진 성서의 권위와 능력을 세워가는 역군을 기린다는 뜻에서 제정 되었다.

수상자는 성서학과 4학년 졸업예정자인 김예지, 김환, 김윤영 학우이다. 김예지 학우는 영유아보육학 복수전공 관계로 졸업을 연기한 상태이다. 이들은 2014년 BRC(Bible Reading Class)가 처음 시작되던 해에 입학하여 BRC를 수료하고(제1기), 그 후 재학기간 3년 동안 섬김이로 후배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며 BRC를 이끌어온 믿음의 용사들이다. 이들은 매일 아침 잠자는 학우들을 전화로 깨워 커피와 간식을 준비해 대접하고 힘들어 하는 학우들과 기도하며 낙오하지 않도록 보듬어 온 영적 멘토들이다.

BRC로 인해 성서학과는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성서학과 학우들 사이는 전우에 같은 끈끈한 유대가 형성 되었고 이 유대감은 학업에 있어서나 학교생활에서 낙오하는 형제가 없도록 서로 돕는 안전망이 되고 있다.

성경 다독자에게 주는 '에스라상'은 성서학과 졸업예정자인 임계준 학우가 차지했는데 재학기간 중 17독을 기록하였다. 에스라 상의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달 모든 졸업예정자에게 "학우는 재학 중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하였나요?"라는 질문에 20여명이 응답하였는데 성서학과가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에 사회복지학과 고윤정 학우가 8독, 간호학과 정예나 학우가 4독을 했다며 응답하였다. 다독 2위는 15독의 신상훈 학우, 그 다음은 10독으로 김진숙, 김예지 학우(모두 성서)이다.

#### 학부 제 63회, 대학원 제 30회 학위수여식

학사 205명 석사 60명 박사 2명

2월 6일 로고스홀, 서해원 목사 설교

학부 제 63회, 대학원 제 30회 학위수여식이 2월 6일 오후 2시 밀알관 로고스홀에서 거행된다. 학부의 205명이 학사학위를 받고, 대학원은 박사 2명. 석사 60명이 학위를 받는다. 학위수여식에 앞서 갖는 졸업예배에서는 서해원 목사(28회, 대광교회 담임)가 믿음의 세대(민수기 36:10-13)제목으로 말씀을 전한다.

학위수여식은 전통에 따라 모든 학위 받는 학우들이 일일이 총장에게 학위기를 받게되어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인생의 한 이정표를 만드는 귀중한 순간이라는 뜻에서 존중되고 있다. 수여식에서는 학업 혹은 학생활동 우수 학우에 대한 각종 시상도 이루어진다. 금년에는 스룹바벨상(별도 기사 참조)도 제정되어 수여된다.

총장상은 이다성(성서), 박이슬(사복), 박수지(영보), 김형근(컴소), 박수요(간호), 이옥화(대학원) 학우가 각각 받게 된다. 2명의 원우가 기독교상담심리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는데 이름과 논문 제목은 다음과 같다.

- ▲ 김미숙 \_ 한중대학생의 자기 불일치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 ▲ 유양숙 \_ 척수손상 장애인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정시 · 편입 합격자 156명 발표

#### 정시 경쟁률 3.08:1



▲ 면접도우미 학우들이 도서관에서 정시입시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

2018학년도 정시 및 편입생 최종 합격자 156명(정시 120, 편입 36명)이 2일 발표되었다. 정시합격자들은 2월 7일~ 9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앞서 지원자들은 일립관에서 정시 29일(월), 편입 17일(수) 면접을 가졌다. 전공 지원 동기와 학습계획 및 자신의 비전과 가치관 등을 면접관에게 소신있게 밝히며 학업 의지를 불태웠다.

한편 올해 우리 대학 2018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 경쟁률은 3.07:1로 전년도 3.08:1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120명 모집에 368명이 지원하였으며 간호학과가 4.80:1로 가장 높았다. 컴소 4.25:1, 뒤이어 사복 3.19:1, 영보 2.70:1과 성서 1:1 순으로 나타났다. 편입은 전년도 1.96:1에서 올해 3.10:1로 상승폭이 컸다. 5명 모집의 간호학에는 45명이 지원, 취업률 높은 인기 학과임을 실감케 하였다.

신지수 입학관리팀장은 정시 지원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입시전략을 새롭게 점검할 시기가 온 것 같다고 말하였다.

#### 신 · 편입생 예비대학 12일~14일에

#### 우정과 친교 쌓는 첫 만남, 총학 주관으로

2018학년도 신·편입생 예비대학 '움톰'이 하나 총학주관으로 12일~14일까지 사흘간 교내에서 2회 진행될 예정이다. 1차(140명)는 성서학과와 간호학과이며 2차(160명)는 사복. 영보. 컴소 신·편입생이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학교소개, 채플, 학과별 모임, 총학생회와 학회안내가 있다. 또한 성 서인으로써 정체성과 경건을 다짐하는 서약식과 코스게임, 수강신청 및 교육과정 소개 가 펼쳐진다. 참석자 전원은 일립관 기숙사에서 동기와 함께 숙박하며 우정과 친교의 밤 을 나누는데 선배 멘토와 정보공유도 이뤄질 예정이다.

진예은 총학회장은 예비대학을 통해 성서인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후배와 첫 만남인 만큼 격려와 사랑의 마음으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총학은이번 예비대학에 단 한 명의 불참자 없이 100% 참석해 주길 거듭 당부하였다.

관련문의 : 교학팀 950-5405

#### 2018년 제 1차 이사회

#### 김조자, 김중식, 임경미 초빙교수 임용

2018년도 제 1차 이사회가 경기도 양평군 소재 솔비앙에서 개최되었다. 김조자(간호학), 김중식(성서학), 임경미(기초교양교육원) 교수의 초빙교수 임용건을 원안에 따라 의결하였으며 영어교육센터 Fitzsimons Erin Frances 교수 재임용 건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차치우, Crawford, Sue Hong, 박 선, 현희철 이사는 연임시키기로 의결하였다. 만기 도래 예정인 김희태 감사는 대학평의원회 추천 의뢰에 의해 연임으로 결정되었다. 참고로 법인 이사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이며 1회 중임이 가능하다.

법인이 요청한 지난해 추경예산 및 새해 예산안 심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 전체 최우수성적장학 유윤상(성서3)

#### 전체 209명 3억 1천만 원, 1학기 장학 발표



▲ 유윤상(성서3) 전체 최우수성적장학

장학사정위원회는 24일 사정위원회를 열고 2018학년도 1학기 장학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였다. 이번 장학에서는 전체 최우수와 최우수 등 총 209명에게 3억 1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관심을 모은 전체최우수성적장학에는 유윤상(성서3) 학우가 4.3만점으로 영광을 차지하였다. 학과별 최우수성적장학은 이반석(성서2) 학우 외 13명, 우수성적장학과 성적장학으로는 이동민(사복3) 외 23명이 자랑스런 이름을 올리며 기쁨을 나누었다.

전체 최우수의 유윤상 학우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 돌리며 부족한 자를 주의 계 획안에 사용해주셔서 감사하다. 매일 도서관에서 살았다며 천재가 아니기에 엉덩이로 승부했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한편 신입생 성적장학해당자는 등록을 마친 후 성적에 따라 발표된다. 성적장학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전체 최우수성적장학
- ♦ 유윤상(성서3)
- 최우수성적장학
- ♦ 성서학과 : 이나현(1) 이반석(2)
- ◇ 사회복지학과 : 김소영(1) 이종석(2) 신솔(3)◇ 영유아보육학과 : 이나라(1) 정유경(2) 장예솔(3)
-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문진우(1) 김혜원(2) 김종모(3)
- ◇ 간호학과: 김정연(1) 이한빈(2) 백하은(3)
- 성적장학우수(2등/3등)
- ♦ 성서학과: 김채현(1) 안소영(1) 김영목(2) 곽호빈(2) 정서인(3) 조진흥(3)
- ♦ 사회복지학과: 이혜미(1) 이형진(1) 이동민(3) 채은혜(3)
- ◇ 영유아보육학과: 김세연(1) 이혜원(1) 장선주(2) 김혜선(2) 이예림(3) 김태영(3)
-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조종운(1) 윤준용(2) 이유빈(3) 김민호(3)
- ◇ 간호학과: 김인희(1) 김찬영(1) 윤가형(3) 정은경(3)
- 특별성적장학: 황지희(성서4)



▲ 제 44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현희철 목사 가 의장으로 사회를 보고, 김정호 목사가 회 의록을 낭독하고 있다.

#### 한국성서선교회, 제 44차 정기대의원 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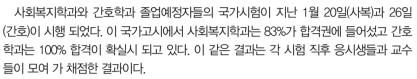
#### 회장에 현희철 목사, 하나님의 정의 가져야

한국성서선교회(총회장 현희철 목사 26회) 제 44차 정기 대의원 총회가 25일 중앙성 서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총회에서는 회장에 현희철 목사, 부회장 구대선(제일사랑교회) 목사, 총무 김재철 목사 등 12개 분야별 신임 임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이에 앞서서 열린 예배에는 현희철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정의를 가져야 한다. 구제와 긍휼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주님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시위원회 등 12개 위원회의 업무보고와 2018년 연간 중요 계획 발표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 간호사 시험에 또 100% 합격 확실, 5년 연속

#### 사회복지사1급 합격 확실률은 83% 껑충 시험 직후 응시자 – 교수 가채점 결과



간호학과 졸업반 학우들은 1월 26일 실시된 '제58회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에 44명 전원이 응시하였고 가채점 결과 전원이 합격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졸업예정자 46명중 2명은 이미 간호사 시험에 합격한 학우들이다. 간호학과의 100% 합격률은 제1회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100% 합격률이다.

이에 앞서 1월 20일 실시된 '2018년도 제16회 사회복지사1급 자격시험'에 사복 졸업예정자(응시자격을 충족한 인원) 67명 중 47명(70.1%)이 응시하였고 가채점 결과 39명(83%)의 합격이 확실시 되고 있다. 우리대학의 사회복지사1급 합격률은 전국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82.6%(69명 응시, 57명합격, 전국 47.2%), 2017년도에는 53%(66명 응시, 35명합격, 전국 27.7%)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대학의 가채점은 의심이 있는 경우 가차 없이 제외하여 실제 결과보다 '합격확실' 률은 낮은 것이 보통이다.



▲ 간호학과 후배들이 영하 17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선배의 합격을 힘차게 응원하고 있다.

#### 우리는 '하나.' 총학 워크숍 가져

#### 진예은 회장 "편의와 만족감 높은 대학생활"

하나 총학생회 임원 워크샵이 12일부터 이틀간 양평군 소재의 펜션에서 진행되었다. 총학생회 향후 운영과 방향성을 논의하고 '하나'임원진간 소통으로 일체감을 높여 총학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자리이며 임원 18명이 참석했다.

진예은 회장이 "우리는 '하나' 총학으로 임원진 내부가 먼저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 학 우들 편의와 만족감 높은 대학생활이 이어지도록 사업방향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총괄사무국과 언론기획부 등 6개 부서별 사업과 운영안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고 새로운 아이디어 등으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임원진은 총학이 학우들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열린 마음으로 학우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고 입을 모았다. 전임총학의 FT와 밀알훈련 및 크리스쳔데이 지원 등 주요 행사의 원활한 지원방안과 사업비 적절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논을 이어갔다.

김석원 언론국장은 임원진 단합효과가 컸고 소통을 통해 총학 방향을 명확히 인식케 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 하나 총학 임원진이 서로간 팀과 사랑을 강 조하는 모습

#### 영보 김민정, 박희동 동문, 유치원 임용고시 합격 헌신 다해 섬겨갈 것



▲ 김민정 동문 (영보 2014)



▲ 박희동 동문 (영보 2017)

영보학과 졸업의 김민정(2014년), 박희동(2017년) 동문이 '유치원 교사 국공립 임용고시'(약칭, 임용고시)에 최종합격, 유치원 교사의 길을 걷게 됐다. 교육공무원 신분이며 1주일 연수과정을 거쳐 김민정(의정부), 박희동(서울) 동문은 병설 및 단설 유치원에서 원아교육에 임한다.

합격의 기쁨을 만끽중인 김민정, 박희동 동문은 한결같이 최종합격자 발표 전날까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하였다며 영광을 올렸다. 이와함께 김민정 동문은 "질 높은 교육을 이뤄내도록 전력을 다하겠으며 주어진 소명 따라 헌신과 사랑으로 섬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동 동문도 "부모님이 인정해 줘서 너무 기쁘다." 남자교사의 장점을 살려 인정받는 교사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상대평가방식의 임용교시는 권역별 교육청 주관에 의해 1차 필기, 2차 실습과 면접 후 선발하며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참고로 이번 선발시험에 서울지역은 1,767명이 지원해 252명(14:1), 경기도 2,242명 중 371명(16:1)이 최종 합격하였다.



▲ 이호섭 중대장

#### 이호섭 신임 예비군 중대장 부임 청년세대와 호흡 즐겨, 성실히 임할 것

본교 예비군 중대에 이호섭 예비역 소령이 부임하였다. 신임 이호섭 중대장은 학사장 교 45기이며 일선 포병부대에서 지휘관으로 복무한 바 있다.

이호섭 중대장은 "주의 소명에 따라 한국성서대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됨을 영광 스럽게 생각한다. 원활한 예비군 업무지원은 물론 입대를 앞둔 학우들과 병무 상담을 활 발히 펼쳐 고민사항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중대장은 예비군 관련 업무 외에 도 교학팀에 소속돼 학생지원 업무 등을 병행하며 학교 발전에 힘을 더하게 된다.

#### 「간호교육 인증」 중간평가 통과

#### "우리 간호교육의 실체를 드러낸 성적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1월 30일, 우리대학의 간호교육이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이 '인증'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의 합격 통보를 보내왔다. 이 평가는 2015년 획득한 간호교육인증프로그램(유효기간 2015년부터 5년간)의 중간평가로서 2020년까지 현 교육의 수준을 인정받은 것이다.

김정숙 간호학과 과장은 이번 중간평가를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해 준 학과 교수와 관련부서들 그리고 이 기간 중 함께한 간호학과 학우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간평가는 학교에서의 교육뿐 아니라 졸업생들의 현장에서의 평가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간호교육의 실체를 드러낸 성적표"라며 기쁨을 표시하였다.



**총장의 편지** 강우정 총장



**직원 컬럼** 이기훈 직원 (교목실)

#### 기쁨으로 쓰는 고별의 인사 - 졸업생 여러분께 -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을 졸업시키며 저는 두 사람을 떠 올렸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바울이 전하는 고린도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삭은 30대 청년이었 다고 전합니다.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신앙을 말해 주는 이 사건 에서 이삭은 조연이기는 하지만 그의 신앙은 아버지 못지 않았 습니다. 그는 순종하였고 묶였고 제단 위에 번제물로 올려 졌습 니다. 100세의 아버지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단 위에 누운 이삭의 시선은 자연히 하늘을 향하였을 것입니 다.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와 믿 음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장 면을 설명하는 창세기 22장 6절과 8절의 "두 사람이 동행하더 니"(As the two of them went on together)의 의미가 아버지와 이들의 완전한 합의(agreement)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 간 것이 아니고 같이 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을 이삭과 같다고 생각하는 나는 가슴이 떨립니다. 모리아산의 번제단을 향해 걸어가던 이삭! 번제단 위에서 하늘을 쳐다보던 이삭!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상상해 봅니다. 평생 이삭의 시선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들)은 고린도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서슴없이 이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지칭합니다. 무슨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께서 피로 쓰신 편지라니! 학우들을 보내며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쓴 '그리스도의 편지'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며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읽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낮은 수준으로 여러분이 '한국성서대학의 편지'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한국성서대학의 진정한 모습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까탈스럽고, 힘든 4년이었지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학우들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이것만은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 우리함께

한겨울 날씨가 무서울 정도다. 기온이 영하 15~20도를 오가고 추울수록 내 어깨도 바람을 피하느라 더 움츠려야 한다. 목 주위를 목도리로 두텁게 감고서 마스크까지 착용 해 길을 나선다. 맨살 노출은 최대한 숨기고 두터운 외투와 모자로 꽁꽁 싸매 나가야 하는 최강의 겨울을 맞고 있다.

추위를 뒤로하고 학우들과 자원봉사가 약속된 북쪽의 경기도 연천지역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추운 겨울에도 혼자 생활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난방용 연탄 배달과도배 작업으로 땀을 쏟았다. 흥겨운 찬양과 우스개 소리가 피로를 잠시 잊게 했다. 내 집 일처럼 열심과 정성을 쏟았으며 이를 지켜본 할머니, 할아버지 입가에서도 환한 웃음 꽃이 보기 좋았다. 봉사 받아서 기쁘기도 하였지만 더 큰이유는 바로 '우리'때문이었다. 씩씩한 젊은이들이 찾아와 쓱쓱 일하는 모습에서 왕성했던 청춘시절을 떠올린 것같았다. 간혹 쓸쓸함도 묻어 나왔지만 웃음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시였다. 웃음은 메이리처럼 다시 되돌아왔고 봉사단을 환하게 해 주었다. 이심전심의 어르신과 우리 관계가 이어졌다. 시간을 넘어 '우리'로 만나서 서로가 행복함을 맛보게 해준 여정이었다.

돌아오는 치량 안에서 생각하였다. 겨울이 워낙 춥다보니 모두가 한파 피하는데 정신을 쏟는다. 그럴수록 이웃과 타인에 대한 의식마저 희미해진다. 우리가 봉사한 연천지역 어르신은 그나마 거주가 일정한 분들. 얼굴에 웃음꽃 피었지만 외로움의 한기마저 숨길 수는 없어 보였다. 어느 시인은 말한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라고'. 이 문장을 그대로수용한다. 머리를 끄덕여 본다. 그러나 가슴 한 켠에선 고독을 숙명처럼 맞아야 하는 초로의 어르신에 대한 비애와안타까움이 나를 짖 눌러 온다.

한파가 여전하다. 세상마저 깊숙이 침묵해지는 이 겨울, 찾아오는 사람 없이 시간만 세며 버텨갈 주변의 이웃에게 한 조각 따듯한 온기라도 전해졌으면 좋겠다. 봄은 아직도 요원한 것 같다.



**교수 컬럼** 이한영 교수(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 컬럼** 박지은 교수 (노인장애인 복지의 실제)

#### 『신경 끄기의 기술』

#### 어쩌다 '복지'

작년 12월 교보문고에서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만났다. 제목이 특이해 알아보니 「타임」, 「포브스」,「CNN」, 「월스트리트 저널」등에서 극찬한 책으로 150만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였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할 것을 찾아 포기하고 신경을 꺼 버려야 성공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평범한 내용의 책이다.

『신경 끄기의 기술』에 소개된 더 나은 인생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을 옮겨봤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져라. 내가 옳다는 확신을 버리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라.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 등 이었다.

그런데 이 책이 왜 이렇게 인기가 급상승하는지 나로서는 좀 의아했다. 많은 자기계발서와 다양한 인생지침서 등을 접했으나 책 내용이 유일한 것도 아니고 제공하는 조언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것까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현대인은 자신의 삶에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래서 자신에게 조언 해 줄 스승을 찾고, 멘토를 찾으면서 조언에 목말라 한다. 물론 조언이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을 위해 내리는 과감한 결단이다. 실천하지 못한다면 조언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실천하기 위해 집중하려면 신경 깨야할 곳에 제대로 신경 끄는 일을 잘해야 한다. 바로 이신경끄기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2018년이 벌써 한 달 지났다. 새해를 맞아 나름의 결단을 했지만, 1월에 실천하지 못한 일이 있는가?

바로 지금 시작하자. 늦지 않았다. 신경끄기를 잘 하면서...

'어쩌다 어른', '어쩌다 부모'... 최근 TV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으로 '어쩌다' 라는 말이 유행처럼 회자되고 있다.

30년 전, 복지라는 단어가 어색했던 시절이 있었다. 우리 사회가 급변하였고 가장 크게 변한 것이 있다면 바로 복지에 대한 확장일 것이다. 어느새 정치와 복지의 밀착현상은 더 이상 부연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되었다.

20대에 사회복지를 만나 50세 바라보며 사회복지를 실천 해오는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대상자는 절대 줄어들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치만 높아지고 있어 어쩌다 확장되어진 복지를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책임감이 커진다.

"도움을 줘야 되고, 문제를 해결하며 선물 제공과 후원금 지급 등…" 우리사회가 인식하는 사회복지 수준이 꼭 여기까지 인 듯하다. 복지 수혜자를 기여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생산 적 복지라고 외침을 더해보나 국가와 사회, 사회복지사에게 의존하는 의존도를 낮추는 데는 내 힘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및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 어쩌다,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의 퍼주기식 복지가 되었다. 주목할 것은 이제 복지는 서비스 받는 사람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도록 환경이 구축되어야할 것이다. '복지'라는 단어를 산타클로스의 선물로 생각하는 낮은 복지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 보편적 복지에 익숙해가는 시민의식도 달라져야할 것이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 하느니라"(전 4:10) 말씀을 기억해 본다. 우리가 사회에 기대하는 것만 가지고 타인의 변화를 바라는 것은 패할 수밖에 없다. 수혜자와 서비스 제공자 또 우리사회 모두가 책임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 노력할 때 성숙한 복지사회도 실현될 것이다. 사회복지가 소비적 개념이 아닌 투자라는 능동적 시각의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과 예측하는 방향으로 우리사회의 건강한 복지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

#### 조지건 작사 컨텀



성서대학교회 담임



#### 봉순이 언니

공지영 씨 소설 중에 『봉순이 언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가의 아버지는 은행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몰락한 아버지 아들이며 남대문 시장에 큰 점포를 가진 처가덕으로 유학까지 마친 30대 젊은 지식인입니다. 어머니는 일제치하 시대에도 바나나를 먹고 자란 상인의 딸이며 남편 성공에 목말라하는 이 땅의 아내였습니다.

주인공은 13살 어린 나이에 식모로 들어온 봉순이의 손에서 자랐고 성공한 부모덕에 기득권을 가진 중산층 작가 자신입니다. 중학교 교복을 입어야 할 어린 나이에 봉순이는 한 가정의 힘겨운 살림을 맡은 겁니다.

지금은 모두가 탐내는 황금의 땅이 된 뚝섬이 70년대에는 버림받은 땅 같았습니다. 굴뚝 위로 뿜어내는 검은 연기와 말똥 냄새 진동했고 기름때 찌든 손톱을 가진어린 청년들 거리였습니다. 그 동네 끝자락에서 시작한 야학에서 만난 것은 기름기없는 가난한 청소년들 얼굴이었습니다. 시골 빈농의 자식들이 도시에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성수동 어느 공장 근로자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버스 문을 두드리고 소리 질러야 돈을 버는 곳 이었습니다. 아마 봉순이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봉순이가 이 가정의 가족이었나? 작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영화구경 가는 날, 봉순이 언니는 새 옷을 갈아 입고 들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했다. 너까지 가면 집을 볼 사람이 없잖아? 언니는 그 순간 팍 하고 굳어지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수그렸다. 아버지가 미국서 돌아오던 날 언니 몫의 선물이 없다는걸 알았을 때 짓던 그러한 표정이었다." 그날 밤 봉순이는 성공의 상징인 주인집 아저씨의 까만 차도 타보지 못하고 그만 방구석에 혼자 남겨집니다. 그나마도 부뚜막에 앉아 식은 밥을 바가지에 넣고 비벼서 먹던 봉순이는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그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가족과 식구가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그 속에 혈육이 중심이 되면 그 의미가 달라져 식구는 한 집에서 함께 살며 끼니를 같이하는 존재로 떨어집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목회를 생각합니다. 방 안에 남겨진 봉순이와 함께 가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좀 덜 먹고, 더디게 가고, 덜 모여도 다 같이 가는 목회자이고 싶습니다. 검은 세단이 아니라 걸어서 가는 길이라도 꼭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하고 희망을 주는 목회이고 싶습니다.

#### K-NSSE 결과로 드러난 우리대학의 수월성



Kokkos는 지난 1월 24일 [특보/기쁜소식] 「우리대학의 교육의 질(質)과 성과(成果) 전국 최상위」제목의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식은 K-NSSE(Korea-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평가 결과를 인용하여 우리대학이 능동적 협동적 학습 등 33개 문항에서 전국 대학 평 균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대학을 평가하는 새로운 도구로 개발된

K-NSSE는 대학이 학생들을 얼마나 건전한 시민으로, 또 유용한 직업인으로 길러 내는 지를 평가하는 척도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대학에 대한 그동안의 전통적인 평가가 대학의 외형과 사회적 평판을 정당화하는 각종 산술적 지표를 중심으로 한데 비해 K-NSSE는 대학의 최종적인 산출 결과는 '학생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대학을 가늠하는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 "나눔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을 경험"

#### 밀알사회봉사단, 연탄배달과 도배로 섬겨



▲ 봉사자들이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댁 창고로 난방용 연탄을 나르고 있다.

밀알사회봉사단(단장 이광삼) 주관의 봉사활동이 17일~19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연천에서 펼쳤다. 한파가 맹위를 떨치는 17일 15명의 학우들은 소외계층에 연탄배달과 도배, 미용 봉사에 나섰다.

연탄배달 현장에 도착하여 연탄을 두 손으로 전하고 나르며 땀방울을 쏟아냈다. 심한 한파로 위축된 상태에서 냉기를 막이줄 연탄선물은 큰 힘이 된다 창고에 쌓이는 연탄을 보며 어르신은 함박웃음을 지었다. 도배지원과 노인건강체크도 함께 이루어졌다. 도배하 가란 익숙치 않았지만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자 환경도 탈바꿈되었다. 간호학과 학우들은 80명에게 혈당과 혈압 등 건강체크를 지원했고 일부는 어르신께 안마와 염색으로 활력을 불어 넣었다.

김지선 학우는 "봉사 이상의 보상을 받고 돌아온 시간이었다. 나눔 속에 베푸시는 하나 님 사랑을 경험하였다"고 말했다.

봉사 후 강평회에서는 좀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을 이뤘고 학우들 모두 자신을 되돌아 본 값진 계기였다며 일치된 소감을 나눴다.

#### 장애우 부모들, 학교에 후원금 전달

#### 지역민과 함께하는 대학에 감사



▲ 전경미 회장 (함께 가는 노원장애인 부모회)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수업에 참여중인 장애우 부모들이 학교 발전에 사용해 달라며 84만 원을 조윤경 교수에게 전달하였다. 우리대학은 보건복지부의 '2017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수행기관'에 선정돼 조윤경(영보학과) 교수 주도로 8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운영해 왔다.

전경미 회장(함께 가는 노원장애인 부모회)은 "수업에서 배운 많은 정보가 실생활에서 활용돼 좋은 결과를 낳았다. 발달장애인의 아픔을 지역민과 공유하려는 대학에 부모들이 감사를 전하고 싶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부모들은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와 함께 삶을 이어간다는 의식을 일깨워 준 수업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부모교육은 지난 8월부터 연말까지 기본과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3개 그룹 190명의 부모가 참여했다.

#### 신 · 편입생 학부모초청 간담회 2월 24일, 로고스홀

2018학년도 신 · 편입생 학부모 초청 간담회가 오는 2월 24일 오후 3시 로고스홀에서 열린다. 간담회는 학교의 교육이념과 정체 성을 학부모에게 소개하는 자리이다. 우리대학의 설립 목적은 무엇이고 앞으로 4년 동안 학교 교육은 어떻게 전개 될 것이며, 4년 후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라는 그림을 그려 주는 기회이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신앙 교육 설명과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구하고, 학생, 학부모, 학교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인식을 함께 공유해 가는 자리이다.

간담회는 예배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대학안내, 교직원 소개로 1부가 진행되고 2부는 전공 별로 분반하여 전공 교수진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진다. 전공의 전망과 장학제도 및 주요 학사업무 외에 여러 가지 궁금증 등을 풀어가는 자리이다.

학교에서는 학부모 모두가 100% 이 자리에 나와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학교가 학부모를 초청하는 다음 자리는 졸업식이다.



#### 2018년 '기도의 해'를 맞아 각 학회를 이끌어갈 신임학회장의 열정과 포부



#### 성서학회 전소희

성서학과 '세빛'은 세상 빛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학회를 지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학우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 관계에 힘쓰겠습니다. 학우를 위해 고민하고 존재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엎드리고 세상 속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세빛과 동행해주십시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성서학과 되길 소망합니다.



#### 사복학회 강옥현

19대 사회복지학회는 '함께' 입니다. 학우들과 소통하고, 함께 나가는 사회복지학과를 만들자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지난번 '다함'학회가 잘 닦아놓은 길을 저희는 깊고 넓게 확장해 갈 것입니다. 학우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 교수님과 학우 사이의 '연결고리'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알찬 프로그램도 기획중인데 적극 참여해주시고 학회비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우들의 멋진 대학생활을 돕는 동반자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영보학회 최지나

영보학회명은 '허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사람의 뜻을 담아 나눔과 섬김으로 봉사하고 헌신해 갈 것입니다. 신입생 대상의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교 적응을 잘 도와주는 선배역할에 적극 힘을 쏟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우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학우들의 높은 참여가 이뤄지도록 학과 분위기 조성에도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겸허하고 낮은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 하며 영보학과 발전을 위해 최선 다해가는 '허람'이 되겠습니다.



#### 컴소학회 남궁찬

점소 학회는 전공 성격과 맞게 완벽하고 효율적인 계획과 처리로 학과에 필요한 일을 시행해 갈 것입니다. 저희들은 효율, 소통, 미래지향의 3가지를 목표로 정진하며 학우 모두가 점소 발전에 힘을 쏟고 이를 도울 문화 창출에 열정을 더하겠습니다. 의견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수님과 학 우 간 교량 역할을 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가 샘솟는 학회를 지향할 것입니다. 서로서로 돕고 나누며 행복을 공유하는 1년 되도록 힘써 일하겠습니다.



#### 간호학회 장효정

간호학회 '다원'은 모두가 다 원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학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지항하고 겸허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저희는 기도와 열정을 다해주시는 교수님과 학우사이를 잇는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경청의 문을 활짝 열고서 공동체로 하나 되어 행복한 학과 생활되도록 돕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치고 힘들때 여러분의 곁에 있는 '다원'학회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43

#### 2월이 28일인 까닭 싶겠지

그대를 기다리기 위해 미리 나와 있느라 2월은 28일밖에 없다 그대를 즐겁게 해줄 이야기를 생각하느라 2월은 목이 마르다 나머지 이틀 혹은 사흘은 그대가 와서 채우라 그러면 우리의 2월은 30일 혹은 31일이 되리니 1년 365일보다 더 많은 세월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으리라



기다일이간 견디수 없는 고통이다. 게다가 가슴 족이는 이가 성격까지 급하다면. 차나리 김 어귀까지 뛰어나와 목은 쑥 빼떠 시간은 마주하는 것이 더 견디만하신가

미리 나와 있느가 하루, 속이 바짝바짝 타느가 하루, 해죽 이야기를 생각하느가 하루, 2월은 이내거네 낮이 모자가다.

그런니 그대여, 나머지 넉气은 그대가 와서 채우가. 깊고 깊은 애끓을이 우리의 그림은 더욱 국건하게 지켜 주건니

#### 건강상식 KBU 보건실

#### 항생제 \_ 오해와 진실



#### ▲ 항생제 처방을 받아 복용 후 증상이 나아지면 그만 먹어도 되나요?

 처방전에 따라 모두 복용하여야 합니다. 감염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고 세균이 내성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 ▲ 항생제 내성은 무엇인가요?

세균들이 항생제에 대항하는 방법을 만들어 항생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와 동물과 환경까지 함께 항생제를 오남용하지 않도록조심해야 합니다.

#### ▲ 감기와 독감에 항생제를 먹으면 안 되나요?

감기나 독감은 바이러스가 원인이므로 항생제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을 때 항생제를 복용하면 소화나 면역력을 담당하는 장 내 유익한 세균들도 함께 죽습니다.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cdc.go.kr



▲ 강사가 예비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 취학 전 유이를 위한 초등전이 간담회

지난 9일 취학 전 유아를 둔 만5세 학부모 대상으로 초등연계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현 직에 있는 1학년 담임교사를 초빙해 2018년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통합교육과정과 취학 전 준비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예비 학부모들은 강사가 전해준 학교적응의 효과적 방법과 통합교육 및 진학시 주요 사항 등을 메모하였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진학 걱정과 두려움이 일부 해소됐다는 소감을 밝혀 주었다.

간담회를 마치고 유아들은 초등교육연계활동을 가졌다. 한국성서대학교 강의실에서 바르게 앉기, 손들고 이야기하기, 알림장 쓰기 등의 예비 입학시간을 경험하였다. 앞으로 6회기 동안 초등 진학을 준비해 나간다. [모음반 임미숙 교사]



▲ 'YAHO' 봉사단원과 청소년경제교실에서 경제골든벨 퀴즈로 함께 하는 아동들

#### '청소년경제교실' 선정

우리 복지관이 삼성증권과 함께하는 '청소년경제교실'의 강북구 거점센터기관으로 선정되어 삼성증권이 제공하는 1천1백여만 원의 사업비를 활용, 총 15회기 사업을 연말까지 펼쳐가게 된다. 사업 내용은 노원구 내 5개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청소년에게 올바른 금융교육과 경제관을 심어줄 예정이다.

청소년경제교실은 2개 영역으로 진행된다. 경제놀이터는 월 2회(격주), 경제관련 교육 중심으로 90분간 이뤄진다. 경제골든벨은 거점센터별 경제지식 대항전을 준비하는 것이며 거점별 예선과 본선진출자를 선발하기 위해 관련학습을 집중 지도하게 된다. 정기교육봉사와 수업 등은 'YAHO' 봉사단이 이끌어 가는데 아동과 청소년 및 대학생 등 총 80명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최원희 사회복지사



▲ 과학놀이 공간에서 만3세 유아들이 물의 흐름을 관찰하고 있다.

#### '상상나라' 현장학습

지난 23일 만 3세 유이들은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상상나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1월의 주제인 '생활도구'와 연계해 다양한 놀이참여로 상상 체험을 해보는 시간이다.

빛과 그림자를 탐색해 생각의 폭을 확장해가는 공간 놀이와 꼬마 건축가가 되어 집 짓는 문화놀이가 관심을 끌었다. 생각의 나래를 펼쳐갈 독서 놀이, 친구와 함께 협력해 체험하는 신체 놀이 등 오감과 신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상상력을 확대시켜 갔다.

특히 물과 바람을 관찰해보는 과학 놀이와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상상놀이에서 다양한 도구와 기계사용에 심취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생활도구'로 현장학습을 체험해 본 유익한 시간이었다. [백합반 특수교사 이민희]



▲ 성서대학교를 위한 영적기도와 후원이 담긴 도표

#### '오직 말씀'

성서대학교회는 올해 네 가지 Vision을 품고 출발한다. 첫째는 맥체인 성경읽기표 따라 성경을 읽는 운동이다. 말씀을 읽는 습관으로 성서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다. 둘째는 가정예배의 회복이다. 온 가족이 말씀 읽기와 올바른 신앙교육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며 2분기부터 시행하게 된다. 셋째는 한국성서대학교와 대학원 후원이다. 기도후원, 장학지원, 성서학과 교수 후원을 통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를 양육에 동참한다. 기도 제목 선포와 새싹장학헌금으로 학교 후원을 이어가게 된다. 넷째는 교회 개척, 행복한 공동체 개척에 뜻을 세우고 목회자 양성과 자립을 위한 인적, 물질적 후원을 펼쳐간다.

1월부터 새싹개척헌금으로 개척에 필요한 자금을 진행해가고 있다. [서 욱 목사]

# 상계백병원어린이집

▲ 신경혜 강사가 학부모에게 자녀교육법을 강의하고 있다.

### 노원구육이종합지원센터 Police

▲ 경찰관 아저씨의 인도로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는 교육을 배우고 있다.



▲ 윤당아트홀에서 열린 '뚝딱 하니 어흥' 뮤지컬의 한 장면.



▲ 학부모들이 청결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재교구 세척과 청소를 하고 있다.



▲ 도담도담 건강체험전에 참석해 감기예방 교육을 받는 아이들.

#### 학부모 교육

상계백병원 어린이집에서는 11일 한국성서대학교 갈멜관에서 부모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신경혜 강사가 자녀교육에 필요한 강의와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졌다. 대부분 상계백병원 직원들이었으며 '존중받는 아이, 함께 크는 부모'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아 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 잘 자라고 있나요?' 제목에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평가하며 대안을 찾아가는 내용이 소개되었다. '우리 서로 대화해요' 에서는 인격체로서 상호 소통의 중요함에 대해 강조했다.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갔으며 모든 학부모가 함께 느끼는 내용이라서 공감의 폭은 컸다. 학부모들도 부모는 자식의 거울임을 확인하였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교육이 자주 진행 되길 희망하였다. [맑은반 이은경 주임교사]

#### 안전하게 건너요! 교통안전교육

2018년 첫 문화공연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 노원경찰서와 함께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사고란 무엇인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5원칙 등을 알려주고 체험활동을 통해 확실히 기억하도록 돕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영유이들은 경찰관의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대답하며 집중하였다.

본 문화공연을 통하여 노원구의 많은 영유이들이 교통규칙을 준수함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교육 효과가 있었으며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에서는 교통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생활안전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계획하여 안전한 생활과 즐거운 문화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보육전문요원 임지혜]

#### '뚝딱 하니 어흥' 뮤지컬 공연관람

지난 26일 만 2~5세 영·유이들은 강남구에 위치한 '윤당 아트홀'에서 공연 중인 '뚝딱 하니 어흥'전래동화 참여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였다.

뮤지컬 공연 '뚝딱 하니 어흥'은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각색하여 영·유아가 일상생활속 지혜를 간접적으로 즐기도록 구성되었다. 이 뮤지컬은 관람 후 체험코너도 있다. 관람자 시선으로 '도깨비 방망이'를 만들고 이것을 무대 속 주인공 '도깨비 마을의 친구들' 과소통하며 참여하는 형식이다. 체험이 곁든 뮤지컬 관람이어서 영·유아의 공연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로 이어졌다.

공연관람과 견학을 통해 영  $\cdot$  유아시기에 창의적인 사고가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샛별반 장혜진교사]

#### 소통 · 공유 · 협력의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퇴근 이후 함께 모여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 교류와 고민상담 및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논의하는 반모임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모임은 격월로 이뤄지며 교육용 장난감 제작하기와 교구 세척 등의 주제가 동반되기도 한다. 이 자리에서는 반모임의지속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부모교육을 도와줄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참석한 학부모는 논의의 장 자체에 큰 공감을 나타냈다. 자신은 자녀의 돌출 행동을 어른의 시각에서 제어하려던 습관을 이제는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나나 원장도 늘 사랑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교육적 기반 향상과 사회성 발전을 위해 소통과 공유 그리고 협력의 시간을 지속시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한반 김미화 교사]

#### 감기예방교육

지난 2일 햇님반 아이들은 충무아트홀 도담도담 건강 체험전에서 열리고 있는 감기예 방교육에 다녀왔다.

교육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익숙한 캐릭터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해 교육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손씻기 노래 부르기를 시작으로 인형극 관람 후 노래와 율동도 즐겁게 참여했다. 공연과 음악, 율동과 동화가 잘 어우러지면서 일상에서 감기예방 습관을 잘 지키도록 해 주었다.

행님반 이지향 어린이는 "뽀로로가 나와 손 씻기 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라고 말했다. 청결한 생활습관이 감기예방에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해 줬다.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집은 건강, 위생 교육을 꾸준히 제공해 갈 예정이다. **[조은별 교사]**  www.bible.ac.kr

#### 「성서대학돕기운동」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17년 12월 21일부터 2018년 1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384 048 3592 \_ Routing No,: 121 000 248

■ 접 수 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17 Fax, 02,950,5516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국민은행 상계동지점(남궁현 지점장)	2,000만원(운영)	하이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강남용)	350만원(장학)
강우정,강 진(총장)	530만원(운영)	동광교회(김희태 목사)	100만원(운영)
중앙성서교회(현희철)	200만원(운영)	성서대학교회(최정권)	100만원(운영)
성서대학교회(최정권)	100만원(운영)	이례장학(장학)	100만원(장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u> </u>	금곡광염교회		2구좌	현호민	일 반	
0.5구좌	이아람	3구좌	김지애 권정완 민승철 설보경	3구좌	박세건 양태환	1구좌	김승애 김영주 김유진 소아름
1구좌	권 준 김찬희 문홍철 박진기	이남희		주향교회		윤주원 윤주하	h 이경태 이성희 정지수 조 <del>목</del> 장
서초롱 이혀	서초롱 이혜윤 조은아 최진희 최혜림		유선미 장이순	1구좌	박민순 유병우	조준우 조준성 최범식 위샐러듀	
2구좌	김샛별 김승용 오정순 이은애	10구좌	신치선	2구좌	정우진	2 <del>구</del> 좌	최국열
교직원 및 기	<b>译</b>	비전교회		중앙성서교회		3구좌	김미수
1구좌	구만길 김봉재 김선준 김춘하	1구좌	장옥경 이반석	1구좌	곽 해 김정희	단체 및 기관	
임원은 요시다고조		2구좌	장선규	2구좌	기옥자	3 <del>구</del> 좌	우리교회
5구좌	곽규상 김현동 안미란 임환석	서울예랑교회		10 <del>구</del> 좌	김윤규.신인자 송인숙 이혜선	30구좌	노아인터내셔널
하승훈		50구좌	신호정	효성교회			
재학생 및 가족 성서대학교회			1구좌	진은숙			
2구좌	고윤정	1구좌	김택근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서유미 서정민 서지혜 서초롱 서 현 서희영 주성현 지영환 진은재 차현정 채유신 채종원	2만5천원 송현미
5천원 김시내 민이삭 정다운 무 명	성은숙 성한나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진규 최규봉 최민영 최사라 최서희 최선경 최수연	3만원 공 <del>복순</del> 권오규 권정완 김다영
1만원 강나경 강순성 강신용 강영규	손혜진 손화진 송명훈 송민규 송석배 송영자 최승주 최승진 최아란 최예슬 최인아 최종운	김대수 김동교 김동원 김민기 김보라 김슬기
강영주 강은아 강은해 강재현 강정민 강정애	송유지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범수 신상용 최진희 최혜림 탁국현 탁명화 하수현 하 진	김종숙 김지애 김지혜 남지원 문순일 문지수
강주옥 강춘자 강현미 고정균 곽미화 구본길	신유섭 신은혜 신태양 신혜영 신호영 신화영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아름 한영신 한원창	문진아 민승철 박기혁 박선하 반세호 방애자
구세경 권명순 권슬기 권영경 권예은 권유철	심두한 심순자 심희남 안용덕 안현정 양은숙 허영숙 현은서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애진	서명주 서성숙 석지희 설보경 송성은 양연선
권정인 권지연 권희조 금동옥 김가영 김경리	엄보영 여지은 오병휘 오세천 오은희 오인록 홍지영 홍정심 홍진기 황선명 황승호 황인숙	양혜경 양혜영 오모세 유설아 유예진 윤가영
김경수 김경수 김경애 김경혜 김기철 김나래	오찬미 오채엽 왕지희 우승연 우양금 원윤희 황형록 황희은 강해든이 설에스더 신에스더	이경석 이남희 이다윤 이성은 이안나 이인영
김다솔 김도훈 김동현 김명희 김무엘 김미숙	위기백 유미정 유선미 유성실 유소담 유영진 왕펑레이나 최아름시내	이주연 이혜민 이화선 임소담 임유미 전지혜
김민겸 김민정 김민정 김민호 김믿음 김병렬	유정례 유지영 유지혜 윤경원 윤솔이 윤영원 1만5천원 이예람	정선희 정슬기 조은경 주혜원 최광희 최소린
김보희 김선식 김선태 김성균 김세현 김소영	윤예서 윤은영 윤정숙 윤지혜 윤혜자 이경희 2만원 곽연희 구본철 구연민 구진경	태지선 황미란 황영숙
김수지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원빈 김유미	이규숙 이근중 이도훈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국소영 김경희 김기옥 김동길 김명희 김미향	4만원 권오경 김예은 김중재 박주은
김유진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은희	이명화 이미숙 이미정 이병주 이삼열 이상용 김민정 김병석 김봉철 김성훈 김순녀 김순덕	배정환 신은진 이윤정 한재림
김응환 김일준 김재현 김정규 김정례 김정모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정 김승용 김연정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5만원 강동란 경민정 김동관 김세영
		김연수 김정옥 김종남 남영란 남희경 목선영
김찬희 김춘덕 김태용 김하라 김하은 김하은	이윤성 이윤주 이은실 이은실 이은영 이은지 김지혜 김태분 남계일 류충열 마혜진 박경수	박광필 박준호 배성준 송복순 양원석 이계훈
김한나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혜선 김혜영	이재도 이정익 이정훈 이주희 이진경 이진리 박대우 박은지 박재송 백연옥 성낙표 성용제	이길순 이부호 이지은 임연식 전은진 조유진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현무 이현섭 소경숙 손성원 송만호 송영희 송정화 신예희	주진우 피경자 허성희 홍현숙
남범수 남상숙 남성휘 노명민 노 철 노한나	이현지 이혜림 이혜선 이혜윤 이환기 이희윤 신정섭 신정화 오상석 오정순 오찬양 왕용분	6만원 박요셉 정동주
	인지혜 임남연 임보령 임삼일 임영국 임은성 유순희 유주홍 윤광길 이경희 이광석 이구영	10만원 강경옥 김선옥 김장교 김종우
	임찬웅 장두성 장세진 장순호 장익봉 장익심 이기주 이보아 이상복 이선영 이선재 이영애	
박경옥 박명우 박문홍 박상수 박성준 박수진	장희남 전미영 전병준 전상호 전아름 전예지 이용원 이유미 이유진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최대만 최종건
	전한나 정금숙 정선도 정성종 정성헌 정성희 이진희 이충재 이충희 임은희 장민호 장석찬	
박은선 박재신 박재윤 박종주 박주옥 박창대	정영교 정영용 정옥례 정옥순 정은숙 정은영 장재원 장정인 장혜원 전영희 전택복 정주영	100만원 이례장학
	정인철 정지현 정진영 조경애 조믿음 조병수 정지용 조성진 진태임 최선옥 최수지 최윤석	
		재학생 및 가족
백명희 백연주 백은진 백향목 변지윤 서미희	조은화 조인순 조장현 조태환 조희진 주민자 황보혜영	1만원 강명희 강애솔 강정희 고세현

기부자 명단									
	! 김명선 김민아	기사자 기사자	=10 년			이렇다 이기의	· 이경숙 이노선 이대영 이대한	1마의	구필례 권숙영 권영욱 권창석
				T17111					
	김창현 문성남			전귀선					김기수 김대성 김동우 김명호
	박성경 방지연			신지수 이은광			임성일 임숙정 최미숙 최정자		
	송순덕 신연정			박태수		홍동숙			김인호 김진영 김진희 김천수
안소연 염인형	오미선 유양숙	윤운섭 윤효심	12만5천원	정휘진 최육열	한진호	2만원			류찬성 박미숙 박영미 박영해
이누리 이동기	이민화 이용철	이원혁 이정숙	15만원	김량헌 김희수	배진형 최영태	변경선 송형기	신양금 이길우 이승림 현호민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소이름 송수용 안애숙
이혜진 임동회	임창열 정창금	진옥주 최상모	20만	김성경 김창원	박 선 안정선	홍기순			오미선 오현수 오현숙 유해연
최인호 홍경희			임지영 정해덕	조윤경		3만원	권정숙 길용희 박주형 양태환	유화실 윤주원	윤주하 이관헌 이나영 이민우
2만원	공진희 김복녀	박재숙 안혜경	22만원	이강동		전명진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유진 이현두
오옥경 이영림	정형철 최혜진	허 윤홍은선	30만원	최선희		4만원	박세건	이현수 이혜숙	이호정 임화경 장명웅 장지화
2만7천원	고윤정		660만원	강우정.강 진		5만원	김동선 김일선 이숙영	정지수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3만원	김민지 김영선	김윤정 김진홍				10만원	박은영	조준성 조준우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원실
남세영 박재왼	박희영 서재형	신광영.김숙향	부설기관			30만원	김을렬	최은실 최인숙	최인순 최점숙 하경국 한민희
정효선 조대의	l 채형찬 천은주	최자경 추찬송	1만원	권은지 김령오	김옥준 김은지	340만원	성서대학교회	한상은 허 정	허창금 황영수
홍석화				박제하 서애진				2만원	김윤숙 김종환 김하람 서병준
4만원	엄미자			차도영 최미정			강동형 기병문 김미영 김상오	이일신 장병길	정주아 정형채 최국열 최지연
5만원	허용철		허성보		.20 2-2	이종은 정유광		허정안 홍춘호	
10만원	박연자 이상학		2만원	김은비 박지은	전안나 호오즈		002	3만원	김미수 김한수 장문석
.522	12.14107		3만원	강예은 권정아			강길자	4만3천원	박은영
교직원 및 가격	<u>s</u>			김은솔 김현애		이레교회	02/1	5만원	강한성 석지현 이미경 이천화
1만원		기사이내 그도시		박진희 박천순			손미희 이채은	주은자 차인숙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근미의 이제근	10만원	류동원 박경혜 손삼수 조수진
	I 전이금 전이징 I 김선준 김 성						권정숙	최수일	1100 704 667 470
0 _0_				0 0 .0	0-00		_ <del>_</del> ·	30만원	박순정 조남조
	l 김하율 김형중				최근에 되이니		장자교회	80만원	최병규
	· 박묘서 박은영				니어스 이지어	주향교회	ОНО	0022	±10∏
	: 안수자 안효영 } 이승영 이종우			강진아 박연희	시앙국 이시인	1만원	유병우 정우진	단체 및 기관	
					정나나도로지	2만원		1만원	(주)대우노즐/(주)삼현미디
	· 장새순 장석윤 · 정보미 조형서			김승옥 이인경	영니니 조공선	3인년 중앙성서교회	주향교회		(무)데무도글/(무/담진미디 랑교회/맘키즈푸드/이음기업
	: 정보미 조형섭		시구나 15만원	김신덕 김화영	아마히 오토즈		곽 해 김세현 김재혁 김정희		(주)삼삼전기관리공사/(주)엘
최인구 최역인 요시다고조	! 한시연 한종철	이판인	차 건	음신국 음화장	디미의 <del>포</del>				(구/급급전기단디증시/(구/글 두천성실교회/동신자원/문양
1만5천원	강혜민 김신혜	하나	시 년 25만원	신영자		2만원	· 최경자 최영란 최영숙 - 기오자 시영오 O그스 이스병		: 무건 6일 표되/ 6 년 시년/ 단 6 !교회/예수꿈사랑교회/월계성
1만8천원	김희	시이크	2008	264		이준구.안춘자		서교회/주님의	
2만원	고진주 곽수영	권겨에 기나즈	권서제인교하			3만원	중앙성서교회 원로 · 은퇴장	3만원	
	고 한 기구 이 김장호 김하은			이상규		로회	99.9시파최 년포 , 근회의		교회/섬기는교회/신작교회/우
	. ㅁᆼ로 ㅁ이는   박일립 박준기			권선제일교회		고되 김덕규		1	좋은나무교회/푸른동산교회
	· ㅋㄹㅂ ㅋ군기 · 오철송 유성현			CCMERS		5만원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중	5만원	나눔침례교회/수색감리교회
	. 포필증 ㅠ증진 ! 장영자 장지순			김복례 김영란	배 으기청지	9년년 앙성서교회 권	000 1 122 10		으교회 유치부/행전교회/향기
최형찬 한상민		0년국 되시년	한미희	B-11 BOC	W 2.622	10만원	시되 김윤규.신인자 송인숙 이혜선		
2만3천원	김의군		3만원	이은지		현희철	급표표.연근시 중근목 이에인	10만원	(주)두리아이티/(주)아이앤유
2만5천원	리크는 김병수 김영직	ныы	120만원	동광교회		12만원	황인돈.김순자		(1//1 리아이리/(1/아이라마 C이레디자인/가성교회/구리중
2년5년년 3만원		학원역 민희숙 박재진		00111		200만원	중앙성서교회	1 1 1	[회/두암산업(주)/상일교회/생
	심군의 심정국 명계향 임경미			서효정		200인년   <b>퇴계원제일교</b> 회			(최/구급전급(구//경골교회/경 )/오감발달연구소
당신의 소속인 한요게벳		6분에 구근건	비전교회	VIT-O			의 어재영 유숙자 차형미	20만원	//エ금글로구도 (주)소원기건/구리성광교회/
3만5천원	김봉재 김 <del>은</del> 실	바서버 이기호		윤겸제 윤규리	유리나 우즈이		퇴계원제일교회	서부중앙교회	(,,===,,,,,,,,,,,,,,,,,,,,,,,,,,,,,,,,,
	음등세 음근 글 조영채 최은비		<sup>1건년</sup> 장선영 조현아		프릭의 프포의	명원교회 평원교회			(주)우리은행
4만5천원	김인화 손정수			장선규		1만원	정혜옥	30만원	노아인터내셔날/염창중앙교
4년3년년 정영은 진달래		105 055	2년년 3만원	이훈호 장석원		I 전 전   평화교회	0~11-1	회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5만원	। 김성호 김중식	기태서 이오기		리스포 이디션		1만원	김광석 안종민 정순이	60만원	동서환경(주)
5년년 장정순 전영천		급위 6 시판기	1만원	김초롱 오성군	정혜란 진재증		TOU FOR OEA	80만원	만나교회
5만5천원	: 이승분 김은영 박민수	신재유 유다우		U-0 -0L	ONLE EVILLE		유금례 윤은정 정영숙 황창선		하이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
유미나 유수연		2-112 H-1E		삼일성서교회		함평대동교회			재단법인 경기복지재단
6만원	이성아		서문교회			1만원	김희경		국민은행 상계동지점
6만5천원	김덕원 신금주			강선애 박경자	유인호 인용주		1 10		
	고성산 곽규상			정찬수		1만원	권선자	소계 (20171	221~20180120)
	모이는 기가 8 단미란 이광삼			서문교회		10만원	화계중앙교회	. ,	78,615,985
최사랑 최지은		, , , , , , , , , , , ,	석계제일교회	,		효성교회	, 100	누계 (20170	301~20180120)
8만5천원	권경만 양희정	장성희		이재순 채용문			오혜숙 원 구 유순남 진경숙		758,344,211
10만원	강규성 강정원			ALC MOL		진은숙 한옥경			
		김은호 김정수	1만원	강경혜 강선영	심니데 심린지	ZP179	김양례 신요국		
김도경 김미정	김승호 김웅기			강경혜 강선영 김원태 김윤선		2민권	김양례 진효숙		
김도경 김미정 김정원 김정원	! 김승호 김웅기 !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김배열 김영숙	김원태 김윤선	김지현 김태연		김왕에 신요국		
김도경 김미정 김정원 김정원 안현미 오윤선	김승호 김웅기	김현욱 김형미 유정선 유하나	김배열 김영숙 김택근 김현미	김원태 김윤선 김희자 민영빈	김지현 김태연 박명자 박영신	일 반	권태환		